

칼럼

장기채 주필



가난한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낸 이 시대 노인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로 그 수준이 아주 심각한 정도라니 걱정이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인도의 낡은 호텔로 모여들었다. 적은 비용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멋있게 보낼 수 있다는 광고에 속은 사람들이다. 끄덕지 않은 형편에 저마다 다른 시련과 목적으로 인도행을 선택했지만 마땅히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려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코미디 영화 '베스트 액조티 페리골드 호텔'의 줄거리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지만 선진국에서도 노후 준비는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오죽했으면 은퇴자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면 타국까지 가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우

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 국가를 중 경제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 정도가 식량난과 식수 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 원을 호기하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부끄럽게OECD 65세 이상 가구 상대 빈곤을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 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7천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다. '자식 기우느라 등골이 빠진다'는 말은 결코 혀발이 아닌 듯 한데도 젊은 부모들 또한 대물림하듯 자식 교육에 울이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뜩지 않다고 봐야 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지출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랑스럽지 못한 1위인 것이 여전히 자자하고 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 비율, 고등 교육 이수율, 그리고 노령화속도 빙고율과 노인자살률이 주목해 볼 만한 1위 항목이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좋고 잘자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 대책 없이 영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불황 속에서도 노인을 먼저 배려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복지 재정 지출은 주요국 중 가장 적은 편이다.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풀 수밖에 없다. 돌아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

인이 한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떠온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선조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 사상과 경로사상을 '온 인류의 유품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으로 견뎌야 할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시대다. 최근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복지지표 발표에서 한국은 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부끄럽다. 하지만 토인비가 부려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리자면 정부역할도 중요하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부양만 받아온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노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社說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해야

광주 전남에도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시정이 이러한에서도 건물의 23층 이상은 불이 났을 때 외부로부터의 구조나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크다. 자체 소방·대피 시설이 없으면 화재 때 큰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소방청에서 보유한 가장 높은 사단리치는 최고 70m짜리로 28층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에 1대, 부산에 2대 등 전국에 2대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선 이용이 어렵다.

전국에 널리 보급된 사단리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m짜리로 22층까지 달을 수 있다. 이것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16대가 보급되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단리치의 구조나 화재 진압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55m, 22층이다.

23층 이상은 자체 소방·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화재 때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소방 헬기를 통한 구조나 화재 진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비행과 반발력 등으로 인해 헬기를 통한 화재 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헬기는 이용한 인명 구조도 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건물 옆에서의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 의원은 23층 이상에 사는 시민들은 불이 났을 때 스스로 끄거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실내 스포링클러와 소화기, 실내외 소화전, 상수도 소화설비, 파난안전구역, 유도등, 연기제거설비 등을 필수적이다.

현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만 107개가 있으며, 부산이 28개, 서울이 22개, 경기와 인천이 각각 19개로 가장 많았다. 소방당국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고가사단리치 구입 등 고층아파트 화재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稅 세금	熟 숙	貢 공	新 신
의을	적신	비칠	세
주	증	공	세
부	비	신	新

▷뜻: 곡식이 익으면 부세하여 국용을 준비하고, 신곡으로 종묘에 제사를 올린다.

동북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 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6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리자5층)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경제조 대표 전화 (062) 224-5800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 이사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겨울철 화재예방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전열, 난방기구의 사용과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커지는 시기이다.

지난 12일 새벽에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40대 주부가 화마를 피하려다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순소방서에서는 다가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중심 추진한

다.
주요 대책으로는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으로 소방안전문화 조성, 생활안전 소방정책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및 산불피해 방지 적극 대처 및 출동형 화재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지키기 등이 있다.

이울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려면 화재예방이 필수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전열기구 등의 안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다면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열, 난방기구의 취급과 사용 상 안전 수칙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첫째,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고 특히 전기장판은 절대로 접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플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플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또한 문어발식 전기콘센트는 괴부하가 걸리기 쉽게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셋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커튼이나 가연물집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혹시라도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시킨다.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며 평소에 성냥이나 리터터 등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이와 같이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열, 난방기구의 취급과 사용 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로 인한 화재사고의 아픔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호 / 화순소방서 예방홍보팀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고涉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